개별적 자기가 아니라 포괄적 자기, 실상의 주인공을 믿어야

☞ 19면에서 계속

또는 무엇을 먹고 살고, 무엇을 주고 살고 공생, 공용을 진짜로 넣어 준 게 있느냐 이런 거. 근데 인간하고도 아주 그냥 뭐, 아주 가깝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주고 먹고 이러면서.

그리고 목신도 없는 게 아니죠. 인간의 자신도 이게 자성신이거든요. 자신, 자성신. 이게 자성신인데 목신이라고 없나요? 목신도 있다고요. 물도 신이 있어서 수호신이라고 그러죠, 용신이라고도 그러고. 수호신하고 용신하고 뭐가 다르냐? 수호신은 가만히 물이 흐르는 걸 말하지만, 가만히 물이 이렇게 동요 안 하는 걸 말하지만, 그 물만 말입니다, 있는 것, 그런데 용신은 그 물에 생명이 있어서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생각을 내면서 모든 거를 이렇게 그 생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를 용신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래요. 바로 자성신이 용신이죠. 왜냐하면 생각을 내지 않으면 무엇이 성사가 되지 않으니까, 목석이니까요. 생각을 악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생각을 누구나가 다 내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그 생각 내는 데에 달려 있다. 악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선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좀 더 선 쪽으로다 무겁게 간다면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또는 잠재의식 쪽으로 한번 생각을 기울여 봐라. 그러면 너 나왔던, 전자에 내가 나오기 이전에 살던 그 세상으로 한번 맛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거죠.

이게 그냥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내 생에 정말이지 아픈 눈물을, 어느 때에 걸음을 걸으면서 육이 아프고 춥고 배고프고 쓰러지고, 쓰러지면서도, 업드러지면서도 그,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걸었다는 거.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 맛을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도 자식 낳고 살림하면서도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신다면 못 할 게 하나 없어요.

우습게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요 둑에 조그맣게 요만큼 뚫린 것이, 사람이 안 보이는 데서 조금조금 고였던 그 물로 인해서 큰 둑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그맣다고 우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아무렇게나 산다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동물이자, 바로 99% 100%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살고요. 돼지처럼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만물의 영장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아시려면 자기 주처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놓는 작업부터 열심히 해 보십시오.

팔자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요

질문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연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고 다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팔자 운명이 다 정해져 있는 것인지요.

답변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리자면 말이 조금 길어지는데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 내가 수차 이런 말을 했죠. 수억겁 광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똑같더라도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살던 어떠한 일, 악업이든지 선업이든지 자기가 짓고 산 그 차원대로, 즉 말하자면 엄마 아빠의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가서, 수십억 마리가 있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들어가서 몸 하나를 받고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뼈, 어머니의 살을 받아서 몸 하나를 딱 받죠. 그 수십억 마리가 모였다가 다 흩어집니다.

다 흩어지고 그 한 몸 받은 데 가서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악업이나 선업을 했던, 즉 의식 자체가, 업식이 거기에 포함이 돼요. 포함이 돼서 이 세상에 등장하면 여러분은 과거에 내가 인연에 따라 업을 지은 것을 좋게 한 것은 좋게, 언짢게 한 것은 언짢게 받을 것입니다. 모르고 저지른 것은 모르고 받게 마련이고 알고 지은 것은 알고 받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 지금 그냥 수십억 마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식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때는 기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잘되게 해 주다가도, 어떤 때는 그 잘된 것이 망하게도 해 주고 어떤 때는 속상하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병들게 해 주고 어떤 때는 남편과 이혼하게 해 주고, 여러 가지로 고정됨이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것을 고덩어리라고 이름하죠.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과거도 현재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짊어지고 나온 데다 되놔라 이겁니다.

카세트 얘기 자주 합니다만 카세트에 담긴 말이 내가 현실에 또 집어넣으면 앞에 넣었던 것은 없어진다. 연방 넣으면 없어지고 넣으면 없어지면 그것이 과거에 어떠한 인과로 인해서 업을 가졌어도, 지옥고를 당해도, 악업을 지었어도 다 녹아들고 무너진다 이 소립니다. 이열치열이란 말도 있듯이 그렇게 나온 자리에다 되놓는다면 그 카세트에 녹음하는 것처럼 없어진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거기다 모든 거, 무슨 업이 있다, 나는 죄가 많다, 모든 수많은 이름들의 업, 팔자 운명 이런 말도 붙이지 마시고, 내가 죄가 얼마나 많기에 이런가 하는 생각도 마시고, 그런 생각이 나거든 그냥 자기 주인공에 맡겨 놓으세요. '모든 게 당신 속에서 나온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수밖에 없지.' 하고 놓고, 모든 게 또 좋게 되면 '아, 감사하구나.' 하고 또 놓고, 그렇게 하라는 데 뭐가 어려워요, 그게? 이거 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모든 게 과거에 지은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물질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물질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몸에, 내 가정에 다가오니까 그것을 녹이면 되고요. 그것이 일차적으로 내 마음을, 내 참나를 발견하는 데도 이익이고 내 자식들을 이끄는 데도 이익이고 부부지간에도 이익이고, 모든 게 나 하나의 자가발전소에서 불 하나 켜면 가설이 주욱, 아들이다 딸이다 뭐, 부부다 부모 형제다 하는 데 가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본래. 그러니까 자가발전소에서 스위치만 누르면 다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다 녹아진다는 얘깁니다. 아무리 필연이라 해도 내 한생각으로 다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생활 불교며 생활 참선이며, 바로 이것이 좌선도 되고 참선도 되는 거죠. 마음 편안하면 그것이 좌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서 그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옹쳐 놓고 꼼짝 못 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그런 걸 탁 털어 버리세요.

마음은 저 벽도 없고 지붕도 없고, 우주도 갈 수 있고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았어도 내 집엘 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내 가정과 내 몸과 내 자식들을 튼튼하게 하고 부모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로 남을 원망하지 말고 증오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나라는 아집 내지 말고, 모든 것은 내 탓으로 돌리면서 모든 걸 주인공에다 놓는다면, 그리고 부지런히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는 그러한 발전적인 여러분이 된다면 아마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실 겁니다. 자유인이라는 것은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여함입니다.

> 내 마음으로서 창살 없는 감옥에다 내 몸을 옹쳐 놓고
> 꼼짝 못 하게 하는 좁은 마음을 갖지 말고
> 그런 걸 탁 털어 버리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질문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의 남편에게도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한마디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아버지 노릇을 해 보시죠. 조금 잘 돌아가면 아버지가 수월하고 또 그 자식들도 부인도 일가친척들도 다 "아휴, 저이는 근면하고 아주 착실하게 잘 산다." 하고, 그게 망해 가지고 잘 안될 때, 속상해서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 "저건 저러니까 저렇게 됐다." 이러죠. 부모는 안타까워하겠지만 자식들이나 일가친척들이나 부부지간에도 그거는 금이 가고 말아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술만 먹고 그러냐 이러죠. 그 속을 알아주지 않죠.

그러니까 그럴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다시 한번 마음을 일으켜 세워 줄 수 있는 그런 산하대지의 어머니가 된다면,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는 바로 태양의 아버지가 된다면, 또는 다 키워서 거름도 잘 먹일 수 있고 태양인 아버지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두 부부가 돼야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주고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하는 일은 표시도 나지 않으면서 밥해야지, 먹어야지, 빨래해야지, 치워야지 또 딴 사람이 오면 뭐, 어쩌고 어쩌고 하다 보면 이 엉덩이가 무겁고 다리가 무겁도록 그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 남편이 들어와요. 그러면 또 받아줘야 하는 이치가 있죠. 그리고 심부름해 줘야 하죠.

그럴 때에 그 말 한마디가 약이에요. 아주 "여보! 당신 오늘 하루 종일 나가셔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소? 더운데, 추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들어와서는 "여보!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은 집에서 표시도 나지 않는 그 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소. 몸이 피곤하지?" 이렇게만 한마디 하면 그 아팠던 게 그냥 언제 그랬더냐, 내가 언제 엉덩이가 아팠나,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피곤했던 것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하하.

자식들한테도 악하게 말을 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을 해서, 모든 건 주인공에 맡겨 놓고 그저 부드럽게 말해 주고, 그저 널리 내다볼 수 있는 평화로운 그 평등한 마음. 도둑은 도둑대로 꼬리표 붙여서 생전 도둑 하라고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또 술만 먹는 사람도 평생을 술만 먹으라고 그렇게 붙여 놓은 건 아니거든요. 저 사람이 술을 먹게 된 동기, 뿌리를 캐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죠.

그렇게 해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어머니들이 가지시고 뾰죽뾰죽한 입으로 뾰죽뾰죽하게 말을 하지 말고,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을 해서 그 자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소중한지 알게끔 해 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의 도리요, 아버지의 도리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불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 살림살이 빼놓고, 우리들 빼놓고, 자식들 기르는 것 빼고, 사회를 빼놓고 무슨 불법이 있겠습니까.

